

광양시 남해안남중권 상생 협력 강화

발전협 19차 정기회의...전남 동부권 의과대 유치·국립탄소저감연구소 설립 공동 건의

광양시와 진주시 등으로 구성된 남해안남중권발전협의회는 최근 하동에서 제19차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남해안권 상생발전을 위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광양과 진주 등 전남과 경남 9개 시·군 단체장, 부단체장이 참석한 이번 회의에서는 ▲남해안남중권발전협의회 제7대 회장 선출(보성군수) ▲제5회 남해안남중권 문화예술제 개최지 선정(남해) ▲(가칭)도시정원협의회 구성 참여 ▲2022년 세입·세출 예산안 승인 ▲제33차 UN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3) 유치 촉구 ▲2022 하동 세계차(茶) 엑스포 동참 등 6건의 협의 안건을 의결했다.

또 전남 동부권 의과대학 유치 국립탄소저감연구소 설립 2건에 대해 중앙부처에 공동 건의하기로 뜻을 모았다.

특히 국립탄소저감연구소는 탄소 저감기술 연구 개발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업 지원을 골자로 한 것으로, 광양시에 설립할 것을 건의하기로 결정해 광양만권 저탄소 산업 생태계 기반 구축과 남해안권 탄소중립 가치화가 실현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정기회의에서는 2022년 남중권 자치단체의 주요 행사 중 2022 하동 세계차(茶) 엑스포 2022 코리아 오픈 배드민턴 선수권 대회(순천) 2022 남



지난 2일 하동 비바레리조트에서 남해안남중권발전협의회 제19차 정기회의가 열렸다.

해군 방문의 해의 홍보시간을 갖고 남중권 지자체 양 간의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기로 했다.

김경호 광양시 부시장은 “그동안 남해안남중권발전협의회는 영·호남 동서 화합과 공동 발전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다”며 “주요 현안업무의 공동대응을 더욱 강화해 남중권의 상생발전을 도모하자”고 말했다.

남해안남중권발전협의회는 전남 광양시, 여수시, 순천시, 고흥군, 보성군과 경남 진주시, 사천

시, 남해군, 하동군 9개 시·군으로 구성된 행정협의회로, 남해안 발전거점 형성 및 영호남 상호 교류를 위해 2011년 5월 창립했다. 남해안남중권 발전전략 수립 공동연구, 지역 농특산물 공동판매장 운영, 광역 시·군·자치단체 등 다양한 공동·연계사업을 추진하며 동서화합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순천 제1호 등록 민간정원 '화가의 정원산책'.

별량면 '화가의 정원 산책' 순천 제1호 등록 민간정원

전남도 민간정원 제15호

순천의 첫 등록 민간정원이 탄생했다.

순천시는 별량면 장항길 '화가의 정원 산책'이 최근 수목원정원법에 따라 전남도 민간정원 제15호로 등록됐다고 밝혔다.

'화가의 정원산책'은 2019년부터 순천시 개방정원으로 지정받았고, 2020년 제1회 전남도 예쁜정원 콘테스트 공모전에서 대상을 받아 정원의 아름다움을 인정받았다.

이번 심사에서는 정원적합성·역사성·적정성·안정성·운영성 등을 인정받아 최종적으로 민간정원에 등록됐다.

'화가의 정원산책'은 '정원예술과 정원문화'를 즐기는 산책'을 주제로 하고 있다.

화실과 연계된 갤러리와 음악이 있는 안뜰,

원림정원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숲정원, 사계절 볼거리가 있는 다랭이정원, 운천호수와 순천만 경관을 감상할 수 있는 전망대정원, 100년 이상 된 야생 동백 군락지인 동백숲 정원 등 5개의 공간으로 조성돼 정원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다채로운 볼거리를 제공한다.

민간정원 등록제는 2013년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개최를 계기로 정원을 생태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등 정원관광 인프라 구축과 활성화를 위해 만들어졌다.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민간정원을 발굴하고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와 연계한 정원여행 관광코스로 활용해 시민이 주도하는 박람회를 개최하겠다”고 말했다.

/순천=김은중 기자 ejkim@kwangju.co.kr

여수시, 특성화과 산학융합 취업역량 교육 호응

LG화학 관계자 특강·자기소개서 작성 요령 등 교육

지역 미래산업의 주역인 특성화과 학생들을 위한 산학융합형 취업역량 교육이 호응 얻고 있다.

여수시는 지난 11월 10일부터 12월 2일까지 3차례에 걸쳐 전남대 여수캠퍼스 산학연구관에서 지역 특성화과 학생 100여 명을 대상으로 하반기 산학융합형 취업역량 교육을 실시했다.

여수시에 따르면 청년 취업문이 갈수록 좁아지고 있는 현실에서 산학융합형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인재들의 취업역량을 강화하고 국가산단 등 선호기업 취업률을 높여 교육과 취업의 선순환을 이끌기 위해 마련했다.

앞서 상반기에는 GS칼텍스와 한국바스프 현지 관계자 특강에 특성화과 학생 60여 명이 참여했다.

산·관·학이 함께한 이번 교육은 국가산단 LG화학

자기소개서 작성 요령, 면접 자세 등 현장감 있는 실질적인 팁을 제공해 학생들에게 호응을 얻었다.

외부전문강사로 구성된 인성교육에서는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채용트렌드인 수시채용에 대비해 AI 면접 등 변화하는 취업준비 방향을 제시했다.

시는 교육만족도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해 교육성과와 개선·요구사항 등을 내년도 교육에 반영하고, 산업체 현장체험 등 프로그램을 확대할 계획이다.

여수시 관계자는 “산·관·학이 유기적인 협조체

를 구축해 배움과 취업 정착의 선순환으로 일자리와 정주여건이 마련되고 삶의 질이 보장된 '살고 싶은 도시, 행복교육도시 여수'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여수=김창화 기자 chkim@kwangju.co.kr



전남대 여수캠퍼스 산학연구관에서 열린 '산·관·학 융합 취업역량 강화 교육'에 참여한 관계자와 학생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고흥군 '전남 귀농귀어귀촌 종합평가' 대상

고흥군이 2021 전라남도 귀농귀어귀촌 종합평가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은 시군을 대상으로 유치 실적, 홍보 및 교육 추진 실적, 지역주민과 귀농산어촌인 간의 소통, 시군 독립사업 추진 실적 등 15개 항목을 종합

적으로 평가했다.

고흥군은 민선7기 들어 전국 지자체 최초로 인구정책과를 신설하고, 귀농귀촌인 유치를 앞장서 왔으며, 전국 최초로 지자체가 운영하는 '귀농귀촌 행복학교'를 개소해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을

대상으로 사전 교육 및 임시거처를 제공하고 있다.

또 내사랑 고흥기금 100억원 조성은 목표로 90억원을 조성해 귀향청년 정착장려금과 주택수리비 지원, 가업승계 청년지원, 청년도전 프로젝트 등 도시민 유치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2019년도 도시민 귀농인 통계에서도 전국 1위를 차지했다.

/고흥=주각중 기자 gju@kwangju.co.kr

구례군 군민공감대화 마무리

주민 건의사항 144건 접수

구례군이 '소통·화합으로 행복한 구례'를 군민과 함께 만들어가기 위해 마련한 군민 공감 대화가 호응 속에 마무리 됐다.

지난달 30일 산동면을 시작으로 2일까지 하루 2개 읍면씩 각 읍면 다목적 주민회관에서 실시했다.

이번 군민 공감대화는 군민의 힘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 마련한 중요한 자리로 김순호 군수를 비롯한 읍면 기관단체장, 주민대표 등이 참석해 김 군수가 직접 민선 7기 구례비전 성과와 과제를 PPT로 보고해 군민이 군정을 더 쉽게 이해하고 공감하도록 했다.

특히 구례군의 숙원 사업인 지리산 케이블카

설치를 비롯해 구례읍 권역, 섬진강 권역, 지리산 온천권역, 화엄사 권역의 4개 권역 활성화 방안 등 구례를 발전시킬 여러 가지 비전을 제시했다.

군은 이번 대화에서 총 144건의 주민 건의사항이 접수하고 해당 부서에 현지 확인을 통해 계획이 수립하도록 조치했다. 시급한 사안의 경우는 주민의 입장에서 최대한 조치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순호 구례군수는 “이번 공감대화는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 주민과의 소통이 단절되어 있던 만큼 소중하고 뜻깊은 자리였다”며 “건의사항은 군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바로 해결이 어려운 사항은 현장 확인 후 사업의 우선순위에 따라 될 수 있는 대로 이른 시일 내에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구례=이진택 기자 lit@kwangju.co.kr

귀농향

광주일보 문화예술매거진

2021년 12월호

11월 30일 발행
구독신청 : 062-220-0550
팩 스 : 062-222-0195

조선팝 국악이 날다

특집

- 국악, 창조적 K-뮤직으로 변신
- 방송가 강타하는 국악 열풍
- '조선판스타' 우승 구례 출신 소리꾼 김산옥
- 크로스오버 국악으로 감동, 창조적 소리꾼들

2021 문화계 결산

문학 출판 - 돋보인 광일 신춘문에 출신 작가들
전시 - 3개의 국제 비엔날레 동시 개최
공연 - 작고 격 있는 무대들, 관객 갈증 덜어

해외문화기행 ①

예술의 도시 프라하를 가다
인적 끊긴 카를교에 다시 바이올린 선율이 흐른다

세계문화유산, 한국의 신사를 가다 ⑦

봉정사
깊은 불심, 단아한 모습
봉황설화 간직한 고찰

에향 초대석

46년 연극의 길 걸어온 배우
윤석화
“연극은 대담 되어질 수 없는 질문”

특별기획-전라남도 여행

Jeollanam-do Local Tour

- 강진 푸스 & 일주일 살기
- 남도 유일 서평연구소, 고흥 남일 해수욕장
- 걷는 걸음마다 자연의 숨소리, 남도정원
- 고택체험, 구례 온조루와 쌍산재

전시 화제

'너와 내가 다르지 않음을 보여주는 작가의 진지한 사선'
정희승 개인전

조현영의 클래식, 영화를 만나다 ⑥

영화 '킹스맨'과 엘가의 '위풍당당 행진곡'

향인의 '예술가의 한 끼' ②

좋아했던 방아찜 향기 많은 삶 살았던 화가 하인두

매력물림시대와 떠나는 '남도맛기행'

20대의 젊음으로 찾아낸 목포의 구석구석